

---

# 정책참고자료

---

2018-20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 1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유통기업과 손잡고 제품 경쟁력 높인다.

- 행안부, 『마을기업인의 날』 행사 열어 제품 품평회, 마케팅 역량 교육 진행 -

4

## 2 국민권익위원회

###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추진된다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응답자 94.1%가 확대필요성 공감 -

9

## 3 중소벤처기업부

### 유망 강소·중견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 강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 「Leading Korea, Job Festival」 개최 -

14

## 4 교육부

###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작

- 현장 전문가 토론 및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추진 -

18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재위,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 준비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22

## 6 문화체육관광부

### 뉴딜사업지, 문화적 도시재생 위해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 문체부, 국토부 손잡고 '18년 선정 도시재생 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 -

25

## 7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양성에 힘을 모은다!

- 업·농촌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양성에 힘을 모은다!

30

8 환경부

**수소버스 확산을 위해 정부·지자체·제작사가 손잡았다** \_\_\_\_\_ 32  
- 환경·산업·국토부-8개 지자체 & 현대차 간 업무협약 체결 -

9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워라벨)'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_\_\_\_\_ 36  
-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 -

10 여성가족부

**자살·스쿨 미투 등 청소년 위기문제에  
지역사회 중심 대응 강화** \_\_\_\_\_ 47  
-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

11 국토교통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건설기술은?...스마트건설기술·안전대전 개최** \_\_\_\_\_ 54  
- 27일 건설서관서 전문가 토론회·창업 아이디어공모전·안전경진대회 시상도 -

12 해양수산부

**해수부,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_\_\_\_\_ 58  
- 23일 여의도에서'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개최 -

## 마을기업, 유통기업과 손잡고 제품 경쟁력 높인다.

- 행안부, 『마을기업인의 날』 행사 열어 제품 품평회, 마케팅 역량 교육 진행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주)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등 유통기업과 손잡고 마을기업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행안부는 11월 22일 광주광역시에서 『마을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한 마을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대형마트에 입점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마을기업 제품 품평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 마을기업의 제품 경쟁력 및 마케팅 역량 향상을 위해 대형마트 상품기획자(MD, Merchandiser)들의 컨설팅과 최신 유통 트렌드 교육, 온라인 마케팅 이해와 판매 전략 관련 특강도 준비하였다.
- 한편, 이번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되는 “마을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의 마을기업의 발전상과 실태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발의한 유민봉 의원실의 이순호 보좌관이 참석하여 “마을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근거법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아울러,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정책방향』 설명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특강』도 진행한다.
- 마을기업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14개소가 지정되어 연간 1,599억 원의 매출과 17,438명의 지역일자리를 만들어 냈으로써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효자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 다만, 자립을 위한 금융혜택, 판로지원,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안 등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마을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하고 정착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 문제를 공동체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마을기업이 이번 행사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가 선호하고 신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사개요**

- (일시/장소) '18. 11. 22.(목) ~ 11. 23.(금) / 광주광역시 호텔 홀리데이인
- (참석대상) 약 250명
  -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님, 지역발전정책관 등
  - (지자체) 시 도 : 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 담당자 등  
시군구 : 사회적경제 또는 마을기업 담당자 등
  - (관계자) 시도 중간지원조직, 마을기업협회 및 관계자 등

**□ 주요내용****< Opening >**

- (유공자 포상) 마을기업 육성사업 유공자 포상

**< session I : 사회적가치 확산 >**

- (정책설명)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이해
- (사업설명) '19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중앙부처 정책사업 예산 등 설명

**< session II : 마을기업 >**

- (토론회) 향후 10년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향 토론회
  - \* 오형은 대표(지역활성화센터), 이순호 보좌관(유민봉의원실) 발제 / 패널(4명)
- (특강) 온·오프라인 마케팅교육 등
- (제품 품평회) 마을기업 우수제품(20개 기업) 품평회(마트 4사)
- (우수시책 발표) 시도 중간지원조직 우수시책 발표

□ 시간계획

일 정		내 용		비 고		
일자	구분	시 간	소요			
11.22 (목) (1일차)	Openin g	12:30~13:10	40'	• 참석자 등록		
		13:10~13:12	02'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3:12~13:20	08'	•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 유공자 포상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장	
		13:20~13:25	05'	• 인사말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장	
		13:25~13:30	05'	• 환영사	광주광역시 경제문화부시장	
		13:30~13:35	05'	• 축사	광주마을기업 협회장	
	Sessio n I		13:35~13:40	05'	• 인사말씀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 관
			13:40~14:40	60'	•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설명 - 사회적경제의 이해(40') - '19년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예산 설명(20')	양동수 변호사 (더함 대표)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장
			14:40~15:00	20'	• 휴식	
	Sessio n II		15:00~16:20	80'	• 마을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을기업 발전방향 - 마을기업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	이순호 보좌관 (유민봉 의원실) 오형은 대표 (지역활성화센터)
			16:20~16:40	20'	• 휴식	
			16:40~17:40	60'	• 마케팅 특강 I (유통트렌드) - 한국 유통채널의 현재와 미래 ※ 제품 품평회(별도 회의실)	정재필 (한국MO협회장)
			17:40~18:00	20'	• 품평회 총평	마트 4사 관계자
			18:00~18:30	30'	• 휴식 및 석식장소 이동	
			18:30~		• 화합의 장(만찬)	
11.23 (금) (2일차)		07:00~09:00	120'	• 조식 및 자유시간		
		09:00~09:40	40'	• 중간지원조직 우수시책 발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6개 기관	
		09:40~09:50	10'	• 휴식		
		09:50~11:30	100'	• 마케팅 특강II(온라인 유통 역량 교육) -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50') - 마을기업 상품 온라인 마케팅(50')		
		11:30~11:50	20'	• 우수시책 시상 및 연찬회 강평	지역공동체과장	
		11:50~		• 폐회 및 해산		

**별 첨****마을기업 발전방안 토론회 계획****□ 행사개요**

- (일시/장소) ‘18.11.22.(목) 15:00~16:20 / 호텔 홀리데이 인 광주
- (토론참여) 발제자 - 이순호 보좌관, 오형은 대표  
토론자 - 지역공동체과장, 윤봉란 대표(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김재경 소장(커뮤니티와 경제), 이수인 대표(교동장독대마을기업)
- (참석대상) 지자체 담당자, 중간지원조직, 마을기업 당사자 등 250명

**□ 토론내용****< 주제 I >**

- (발표자) 이순호 보좌관(유민봉 의원실)
- (발표내용) “앞으로 10년을 위해 마을기업이 나아갈 길”

**< 주제 II >**

- (발표자) 오형은 대표(지역활성화센터 대표)
- (발표내용) “마을기업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마을기업과 공동체)”

**□ 시간계획**

구분		내 용	비 고
시 간	소요		
15:00~15:02	02'	• 토론자 소개	사회자
15:02~15:10	08'	모두발언	지역공동체과장
15:10~15:25	15'	(주제 I 발표) 마을기업 발전방향	이순호 보좌관
15:25~15:40	15'	(주제 II 발표) 마을기업의 가치	오형은 대표
15:40~15:10	30'	종합토론	
15:10~15:10	10'	• 질의 및 응답	

##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추진된다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응답자 94.1%가 확대필요성 공감 -

- 앞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주택이 종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500세대 미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까지 확대돼 좀 더 안전한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거지에 대한 국민 안전강화를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말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란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 감시와 주거침입 방지가 용이하도록 건축물 배치·조명 설치·출입구 설계·CCTV(감시카메라)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2015년 4월에 제정되어 시행(국토교통부 고시)되고 있다.

※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붙임 1. 참조

그런데 주거지 중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주택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정되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 나머지 주택들은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소규모 다가구 주택이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주거지 범죄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공동주택보다는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서의 범죄발생이 많았으며 동일 단위면적당 (10만m<sup>2</sup>당) 범죄발생 건수는 소규모 주택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단독·공동주택의 건축물 현황 및 범죄발생건수>**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구분	동수(천동)	범죄발생건수*	연면적(10만 m <sup>2</sup> )**	10만m <sup>2</sup> 당 범죄발생건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4,166	34,535	4,975	6.94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포함)	422	33,593	12,085	2.78

\* 범죄발생건수 출처: 경찰청 2016년 범죄통계

\*\* 연면적 및 동수 출처: 2017 건축통계 요약집

□ 국민권익위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와 협업하여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조사에는 국민 409명이 응답했으며, 댓글 의견은 180건

설문결과에 따르면, ▲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1%였고 ▲ 소규모 주택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사각지대(고립지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77.8%였으며 ▲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8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하되, 주택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의무적용하는 게 맞지만, 규모가 다르므로, 규모나 주택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게 합리적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2018. 5.)

√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부터 우선 의무 적용하되, 범죄발생률이 높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도 의무 적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  
(전문가 의견)

□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 제도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내년 10월까지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출입구, 담장, 부대·복리시설(CCTV 설치 포함), 경비실(CCTV 설치 포함), 주차장(CCTV 설치 포함), 조경, 주동 출입구, 현관문·창문, 승강기·복도·계단(CCTV 설치 포함), 수직 배관 등의 설치기준 등 10개 항목

※ 세부기준은 붙임 2. 참조

3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현행 권장기준\* 중 건축물 외부 출입문·사각지대 및 주차장에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 **현행 권장기준**: 창호재(창문 등을 만드는 재료), 출입문, 주출입구, 수직 배관, 건축물 외부·사각지대·주차장, 검침 기기 등 설치기준 등 6개 항목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주거지에서의 범죄 예방과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 안전 개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 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주요 사례

(자료: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예시)	기준 비적용 (예시)
	
<p>주변과의 시선연결을 고려하여 3면 이상 투시형 구조로 계획된 경비실</p>	<p>주변과의 시선연결이 미흡한 경비실</p>
	
<p>단지 내 보행동선과 인접하고 주동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된 놀이공간</p>	<p>단지 내 고립되어 배치된 놀이공간</p>
	
<p>조명이 충분히 설치되어 안정감을 느끼는 보행공간</p>	<p>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에 위험을 느끼는 보행공간</p>
	
<p>밝은 색상으로 도색되고 연색성이 우수한 조명이 설치된 주차공간</p>	<p>어둡고 연색성이 부족한 조명이 설치된 주차공간</p>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도 개요**

- 자연적 감시·접근 통제 등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등에 대해 정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 출입구·담장·경비실 등 10개 항목에 대해, 감시 용이·CCTV 설치 등 안전 시설기준 의무적 충족 요구

< 항목별 기준 >

항목별	기준 요약
출입구	▪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 출입구 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로 계획
담장	▪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없어야 하며, 감시를 위해 투시형으로 계획
부대부위 시설	▪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 놀이터는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 CCTV 설치
경비실	▪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곳에 설치, 고립지역을 수시 관망가능한 CCTV 설치
주차장	▪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곳에 설치, 고립지역을 수시 관망가능한 CCTV 설치
조경	▪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함
주동 출입구	▪ 통제와 인지가 용이, 주변보다 밝은 조명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해야 함
현관문·창문	▪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도어체인을 설치, 우유투입구 등 금지
승강기·복도·계단	▪ 지하층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 CCTV 설치, 계단실에는 외부 공간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 설치, CCTV 1개소 이상 설치
수직 배관	▪ 지표면에서 지상 2층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

□ **500세대 미만 아파트·다세대주택·단독주택 등은 권장적용**

- 건축물 외부에 대해 감시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500세대 이상 아파트보다 완화된 기준을 권장

< 항목별 기준 >

항목별	기준 요약
창호재	▪ 일정 안전기준에 맞게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
출입문	▪ 일정 안전기준에 맞게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
주출입구	▪ 자연 감시가 용이하도록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
수직 배관	▪ 지표면에서 지상 2층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
건축물 외부	▪ <b>측면, 뒷면, 출입문,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 사물 식별 가능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b>
검침 기기	▪ 전가·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 내에서 검침 않는 구조

## 유망 강소·중견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 강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 「Leading Korea, Job Festival」 개최 -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홍중학)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망 강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청년 채용박람회, 'Leading Korea, Job Festival'을 11.19.(월)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11.19.(월) 10:00~17:00 / 코엑스 C홀

\* 주최/주관/후원 : 중기부·산업부 / 산업기술진흥원 / 일자리위원회

- 이날 행사에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등 성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강소·중견기업 103개社\*와 사전매칭 참여자 1,200여 명을 포함한 청년 구직자 5천여 명이 참가했다.

\*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54개사, 글로벌강소기업 선정기업 19개사 참여

- 참가기업들은 전자, 기계 등 주력산업부터 바이오, SW 등 新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행사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90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 참가기업 업종 분포 : 전기/전자 28개社, 기계/소재 19개社, SW/통신 18개社, 의약/바이오 10개社, 지식서비스 9개社 등

- 이번 행사는 실제 채용계획이 있는 유망 강소·중견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스마트 잡매칭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들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했다.

### ①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조건을 갖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 참가기업들은 여타 중소·중견기업들에 비해 우수한 급여수준과 복지제도를 갖추었으며, 연봉 등 근무조건이 공기업이나 대기업

못지않은 기업들도 다수 참가하였다.

\* 참여기업 평균 대졸초임 : 3,120만원(중소 3,115만원, 중견 3,125만원)

\* 3,500만원(공기업 평균) 이상 23개社, 3,800만원(대기업 평균) 이상 10개社 참여

- 특히,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채용계획이 있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가하였다.

## ②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청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희망을 살리고, 기업들은 원하는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직자의 특기·선호와 기업의 수요를 연결해 주는 ‘스마트 잡매칭’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구직자가 전공, 희망직무 등을 DB에 입력하면 기업의 인력수요, 원하는 인재상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업을 매칭 → 매칭된 기업과 현장면접 등 진행

\* 10.16.부터 사전 실시, 1,800여 명이 신청하여 1,200여 건의 면접 진행  
→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구직자들은 박람회 현장에서 시스템 이용 가능

- 또한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 컨설팅, 취업이미지 컨설팅 등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는 취업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도약을 이루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대표적 기업육성 사업인 ‘월드클래스300’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하였다.

\* 중기부장관 표창 13개(개인 6, 기업 3, 지원기관 4)  
산업부장관 표창 13개(개인 6, 기업 3, 지원기관 4),

## 참고 1

# 「2018 Leading Korea, Job Festival」 개요

##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1.19(월) 10:00~17:00 / COEX C홀(서울)
- (주최/주관) 중기부, 산업부 / KIAT, (사)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 (참석자) 중기부 실장·산업부 실장, KIAT 원장, 월드클래스300기업 협회장 등
- (참여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 103개社
  - \* 매출 400억~1조원, 수출비중 20%, R&D비중 2% 또는 매출증가율 15%
  - \*\* 매출 100억~1000억, 수출 비중 10%, R&D비중 1%(중기부)
- (주요행사) ①채용박람회(면접, 설명회 등), ②유공자포상(기술·수출·고용·투자 우수기업 등), ③성과전시회(월드클래스300기업의 혁신 R&D성과 홍보)

## 2. 주요 프로그램(안)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개막	10:00~	■ 채용박람회 개막	
환담	10:20 ~ 10:26	6' ■ VIP 환담 (1층 VIP 룸)	주요 참석자
테이프커팅	10:26 ~ 10:45	10' ■ 테이프커팅 및 행사장 투어, 무대 이동	주요 참석자
개막식	10:45 ~ 11:03	18' ■ 축하공연,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KIAT원장), 환영사(WC300협회장) 등	사회자 등
축사	11:03 ~ 11:09	6' ■ 축사	산업부·중기부
성과 발표	11:09~11:11	2' ■ 성과 홍보 영상 시청	
유공자포상	11:11 ~ 11:26	15' ■ 산업부 장관 표창(13점) 중기부 장관 표창(13점)	수상기업 등
단체촬영	11:26 ~ 11:29	3' ■ 유공자 단체 기념 촬영	유공자
폐회	11:29 ~	- ■ 폐회 및 내빈 환송	
채용박람회	10:00~17:00	7h ■ 강소·중견기업 채용 박람회	강소·중견기업, 구직자

## 3. 주요 특징

-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강소기업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 참여
- 온라인 매칭 시스템 운영으로 박람회-채용간 연계 강화

## 참고 2

##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리스트(103개社)

순번	업종	기업명	구분	순번	업종	기업명	구분
1	기계 소재	경동나비엔	WC300	52	전기 전자	인베니아	중견기업
2		대모엔지니어링주식회사	WC300	53		코웨이	중견기업
3		미래컴퍼니	WC300	54	SW개 발공급 /통신	에이스테크놀로지	WC300
4		세고스	WC300	55		원스(舊 원스테크넷)	WC300
5		와이지원	WC300	56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WC300
6		유지인트	WC300	57		케이엠더블유	WC300
7		이화다이아몬드공업	WC300	58		성산전자통신	글로벌강소기업
8		제이브이엠	WC300	59		슈피겐코리아	글로벌강소기업
9		알에스오토메이션	WC300	60		아이브스	글로벌강소기업
10		에스알씨	글로벌강소기업	61		포미주식회사	글로벌강소기업
11		에스제이이	글로벌강소기업	62		가비아	중견기업
12		휴텍	글로벌강소기업	63		네오위즈게임즈	중견기업
13		삼건세기	글로벌강소기업	64		주식회사블루홀	중견기업
14		심팩	중견기업	65		mds테크놀로지	중소기업
15		디에스피	중견기업	66		맥아이씨에스	중소기업
16		신라엔지니어링	중소기업	67	브이원텍	중소기업	
17		성지공조기술	중소기업	68	앱코	중소기업	
18		신흥스톤주식회사	중소기업	69	와이즈와이어즈(주)	중소기업	
19		(주)데코페이브	중소기업	70	투믹스	중소기업	
20	자동차 부품	명화공업	WC300	71	화학	펠어비스	중소기업
21		상신브레이크	WC300	72		연성정밀화학	ACT
22		세원정공	WC300	73		(주)동진씨미캠	WC300
23		에이엠에스	WC300	74		삼화플라스틱	WC300
24		주식회사계양정밀	WC300	75		상아프론테크	WC300
25		한주금속	WC300	76		연우	WC300
26		KB오토시스	WC300	77		이엔에프테크놀로지	WC300
27		주식회사테크랜드	글로벌강소기업	78		한국콜마	WC300
28	전기 전자	(주)네패스	WC300	79	바이오 의료	씨티케이코스메틱스	글로벌강소기업
29		그린파워	WC300	80		영케미칼	글로벌강소기업
30		하나마이크론	WC300	81		태봉	글로벌강소기업
31		넥스트칩	WC300	82		루트로닉	WC300
32		비아트론	WC300	83		메타바이오메드	WC300
33		아이디스	WC300	84		셀바이오텍	WC300
34		아이에스시	WC300	85		아이센스	WC300
35		아이원스	WC300	86		에스티팜	WC300
36		에코프로비엠	WC300	87		(주)휴온스	WC300
37		오이솔루션	WC300	88		디알젬	글로벌강소기업
38		오토닉스	WC300	89		서린메디케어	글로벌강소기업
39		위닉스	WC300	90		지오메디칼	글로벌강소기업
40		유니테스트	WC300	91		휴레브	글로벌강소기업
41	인택전기전자	WC300	92	에너지 자원	대주전자재료	WC300	
42	주성엔지니어링	WC300	93		신성이엔지	중견기업	
43	카스	WC300	94	건축 기술/ 엔지니 어링/ 지식서 비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WC300	
44	캠시스	WC300	95		메가박스	중견기업	
45	케이맥	WC300	96		인터파크	중견기업	
46	블루버드	WC300	97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중견기업	
47	어보브반도체	WC300	98		두오모	중소기업	
48	씨엠아이텍주식회사	글로벌강소기업	99		리온커머셜	중소기업	
49	동아전기공업	글로벌강소기업	100		복정제형	중소기업	
50	제주반도체	글로벌강소기업	101		중앙엠앤에이치	중소기업	
51	삼화콘덴서공업	중견기업	102		코원건설	중소기업	

##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지자체와 동행한다

- 제2차 포럼, 지자체와 함께 학생들의 꿈을 키워 나아가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11월 10일(토)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관련 학계 연구자,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 참고 : 교육부 안 >

- ❖ (학교 자체종결)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학부모 모두 자치위원회 미개최를 희망할 시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 다음의 조건(①~④)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①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시,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③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④보복행위가 아닐 것
- ❖ (학생부 미기재)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음
  - \*\*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 봉사)

### 【정책숙려제의 방향】

- 제1차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국민이 중심이 되어 학습과 토론 등 숙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교육부가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과 교육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제도에 대한 지적과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과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정책 형성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책 특성에 맞는 의견수렴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왔다.
- ※ 정책숙려제 소통기법(예시)
  - 국민의견 분석 :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패널조사, 여론조사, 공론조사
  - 권고안 도출 : 시민정책참여단, 규제협상(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25~30인으로 구성·토론)
- 학교폭력 관련 문제는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간에 감정적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더불어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 참고함으로써,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경청한다는 정책숙려제의 취지를 살릴 예정이다.

###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 구성 및 운영】**

-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은 총 7개 집단으로 구성되며, 각 집단 참여자는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학계, 행정·민간·법률 전문가)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교원, 학생, 학부모)이 참여한다.
- 특히 교원과 학부모 등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학교 구성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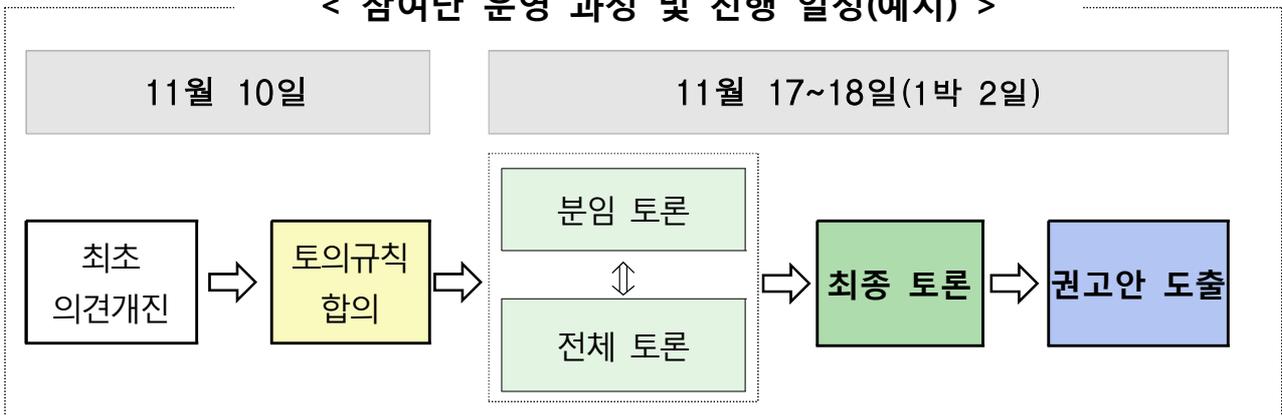
참여를 통해 논의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 선정 기준》

전문가	기준	이해관계자	기준
학계	조교수 이상으로서,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교원	학교폭력 업무 3년 이상 담당 교원
행정 전문가	학교폭력 업무 2년 이상 장학사/장학관	학생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민간 전문가	3년 이상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법률 전문가	교육청 내외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 등		

-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의 논의는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상호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10일에는 전체 일정과 숙려 주제에 대한 안내, 참여자가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의 상호 공유, 향후 토의 진행에 필요한 규칙을 합의하는 절차 등이 진행된다.
  -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분임별 토의와 전체토론을 진행하면서 상호 합의점을 탐색하고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참여단 운영 과정 및 진행 일정(예시) >



##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추진】**

- 설문조사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 설문조사는 학교 자체종결제와 학생부 미기재 방안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성·반대 이유도 함께 파악함으로써,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에 대해 추가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000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참여단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 **【교육부가 최종 정책결정】**

- 교육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이 논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다.
- 다만 최종 정책방향은 교육부가 전문가·이해관계자 논의 결과, 설문조사 결과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학교 자체종결 권한 부여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의 다양한 논의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 지재위,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 준비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LS그룹 회장)는 11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정갑윤·원혜영 의원,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와 함께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 주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세계지식재산전문가협회

- 이번 토론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남북 교류를 대비하기 위한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하고, 한반도 지식재산권 교류 협력과 정책 방향에 대한 미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제1부 이광형 카이스트 석좌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2부에서는 저작권, 상표, 특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남북한 지식재산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제3부 패널토론에서는 북한에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이 특별히 참여하여 북한의 지식재산 현황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붙임 참고

-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남북한 경제와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상호충돌은 필연적”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남북한 양측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전체 사회 : 손승우 교수(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구분	시간	내용
1부	<b>인사말 및 기조강연</b>	
인사말 및 내빈 소개	09:30~09:50(20')	<b>주요내빈</b>
기조강연	09:50~10:05(15')	<b>이광형 KAIST 교수</b>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 공동위원장)
2부	<b>주제발표</b>	
주제발표	10:05~10:50(45')	<b>저작권 분야</b> · 남북한 저작권 협력 및 발전방안 <b>김지영 변호사</b> (법무법인 율)
		<b>상표 분야</b> · 남북한 상표권 보호의 현황과 상표제도 공동 발전방안 <b>최성우 변리사</b> (특허법인 우인)
		<b>특허 분야</b> · 특허권 보호를 위한 남북한 협력 방안 <b>조원희 변호사</b> (법무법인 디라이트)
휴식	10:50~11:00(10')	<b>휴식 및 자리정돈</b>
3부	<b>패널토론 및 질의응답</b>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11:00~12:30(90')	<b>좌 장 : 신혜은 교수</b>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한명성 회장</b> (중국조선족지식재산전문가 협회)
		<b>최 호 부소장</b> (중국 GRANDER IP LAW FIRM)
		<b>김원오 교수</b>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허 인 실장</b> (한국지식재산연구원)
		<b>이규홍 부장판사</b> (특허법원)
		<b>정재훈 변호사</b> (법무법인 소명)
		<b>김현철 실장</b> (한국저작권위원회)
		<b>이승룡 부회장</b> (대한변리사회)
폐회		

## 뉴딜사업지, 문화적 도시재생 위해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 문체부, 국토부 손잡고 '18년 선정 도시재생 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함께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의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 중심시가지형 3곳: 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

\*\* 주거지지원형 10곳: 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올해 5월에도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중심시가지형)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하며, 이와 함께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했다.

\* - 중심시가지형 총 22명: 전문평가단 10명+종합평가단 12명(도시재생 전문가 6명 포함)

- 주거지지원형 총 16명: 전문평가단 16명(도시재생 전문가 5명 포함)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평가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지지원형 사업지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되어, 관련 평가와 컨설팅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상지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힘을 모아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재생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며,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뉴딜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뉴딜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체부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문화영향평가 주요내용
- 2. 문화영향평가 대상 2018년도 뉴딜사업지
- 3.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붙임 1 문화영향평가 주요내용

## □ 문화영향평가 개요

- 문화적 관점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계획과 정책을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도입된 제도(16~)
- \* (근거)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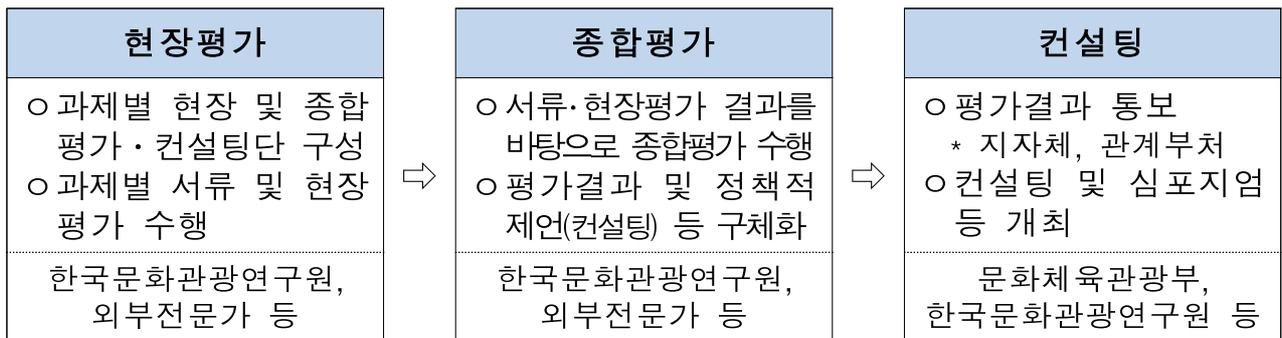
## □ 문화영향평가 지표

- 3대 문화적 요소(문화 기본권.정체성.발전성)를 지표화 하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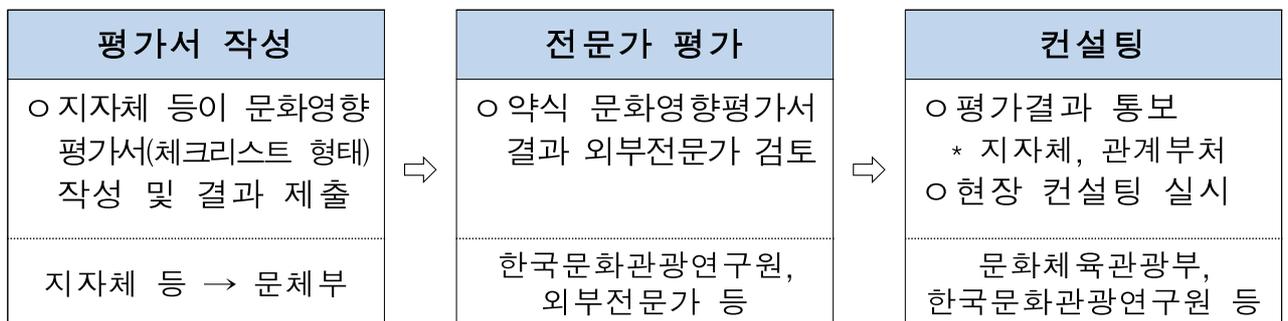
구분	문화 기본권	문화 정체성	문화 발전
평가 지표	1.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 접근성/향유 수준 2.표현·참여에 미치는 영향 -생활·문화 표현참여 수준	1.문화유산·경관에 미치는 영향 -문화 유산·경관 보호/활용 2.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자본/문화공동체	1.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種 다양성/소수집단 2.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자본/창조기반

## □ 문화영향평가 절차

- (전문평가) 평가.컨설팅단 등을 구성한 후 과제별 서면 및 현장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담당 기관별 컨설팅 실시(약 3~12월 소요)



- (약식평가) 지자체 등이 문화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가평가단이 동 평가서 내용 평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담당 기관별 컨설팅 실시(약 1~3개월 소요)



\* 전문평가에 비해 평가·컨설팅 절차가 간소화된 평가 방식(비용·시간 등 절감)

## 붙임 2 문화영향평가 대상 `18년도 뉴딜사업지

### □ 전문평가 대상(중심시가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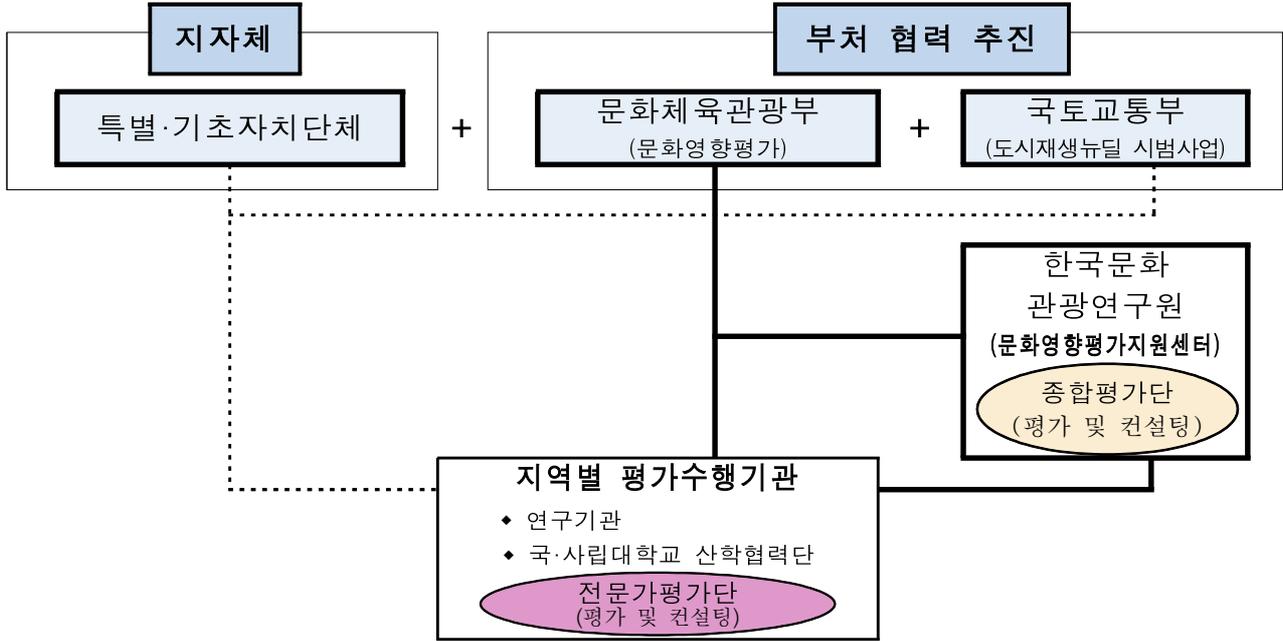
연번	시도	대상지	사업명
1	대구	중구 포정동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2	광주	북구 중흥2동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3	강원	삼척 정라동	천년 SAM(Sea Art Museum)척! 아트피아

### □ 약식평가 대상(주거지지원형)

연번	시도	대상지	사업명
1	인천	중구 신흥동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2	인천	계양구 효성1동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3	인천	강화군 강화읍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4	경기	안양시 석수2동	만년의 기원, 만인이 편안한 도시 만안(萬安) 석수
5	충북	청주시 내덕동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6	충북	음성군 음성읍	역말 공동체! 만남마을
7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동남리 향교 마을
8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읍 모양성 스마트마을
9	전남	광양시 태인동	태인동 과거·현재·미래를 열다! "始作"
10	제주	제주시 삼도2동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남성마을

### 붙임 3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 추진체계



#### □ 기관별 기능 및 역할

기 관	주요 기능	주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영향평가 총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영향평가 시행 감독</li> <li>■ 문화영향평가 결과 공표</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li> <li>■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뉴딜사업 문화영향평가 실시 지원</li> </ul>
한국문화관광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영향평가 시행·관리 주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평가수행기관 선정</li> <li>■ 중앙 평가·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지원</li> <li>■ 공동 워크숍 실시 및 관리</li> <li>■ 지역별 문화영향평가 품질 관리</li> </ul>
종합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평가 및 컨설팅 (중앙평가·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평가 및 컨설팅</li> </ul>
지역별 평가수행기관 (지방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평가·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지원</li> <li>■ 현장실사, 사업별 워크숍 실시 및 관리</li> <li>■ 평가보고서 작성</li> </ul>
전문가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평가 및 컨설팅 (지역평가·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평가 및 컨설팅</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영향평가 실시 지원 (자료제출, 현장실사 지원, 주민 및 기본계획 연구진 미팅 지원 등)</li> <li>■ 문화영향평가결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li> </ul>

##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양성에 힘을 모은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산림교육원과 교육훈련발전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 《 주 요 내 용 》

- ◆ 협약기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산림교육원
- ◆ 일시·장소 : 2018.11.23.(금), 산림교육원
- ◆ 주요 협약내용
  -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강사진 공유
  -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 및 시설·장비·교육장 등 공동활용
  -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
  -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의 교류 및 협력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서해동)은 11월 23일(금) 산림교육원과 농식품분야 및 산림분야의 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두 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에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강사진 공유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시설·장비·교육장 등 공동  
활용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의 교류 및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개발·운영  
노하우와 우수 교육과정을 서로 공유·활용함으로써 수요자들

에게 더욱 품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로의 전문지식을 접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계·개발하는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두 기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으로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농림축산식품산업을 한층 발전시킬 인재를 키우는데 힘을 합치는 동시에 농업·농촌과 산림의 다원적·공익적인 가치를 알리는 노력도 함께 하겠다.” 고 말했다.

## 수소버스 확산을 위해 정부·지자체·제작사가 손잡았다

- 환경·산업·국토부-8개 지자체 6 현대차 간 업무협약 체결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 시내버스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지자체-제작사 간 업무협약을 11월 21일 오후에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에 예정된 전국 6개 도시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 수소버스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2년간 서울 7대, 광주 6대, 울산 3대, 창원 5대, 아산 4대, 서산 5대 등 총 30대의 수소버스를 전국 6개 도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것이다.
    - 협약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내년 시범사업지역의 지자체 관계자\* 및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이 참석한다.
- \* 서울시장, 광주·울산 부시장, 충남·경남 부지사, 창원·아산·서산 시장
- 협약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의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이날 서울시 수소버스 시범운행(405번 노선)과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발대식(창립총회)도 함께 개최하여 수소버스 확대와 수소

충전소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기로 했다.

- 또한, 수소버스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수소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협약식 행사가 끝나고 곧바로 서울광장에서 수소버스 시승행사가 이어진다.
  - 참석자들은 현대차 관계자로부터 수소버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소버스를 타고 서울광장을 출발해 종로1가를 돌아서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
-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수소 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지자체-제작사가 상호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는 내년에 수소버스 시범사업을 한 후 2020년 하반기부터 수소버스 보급을 시작해 2022년까지 총 1천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붙임 1. 수소버스 보급 확산 협약식 행사계획(안).

2. 질의응답. 끝.

※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11월 21일 오후 5시 이후 순차적 게재)

## 붙임 1

#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계획(안)

### □ 행사 취지

- 정부-지자체-제작사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

### □ 행사개요

- (일시) 2018. 11. 21(수) 16:00~17:00
- (장소) 플라자호텔 루비홀(22층), 서울광장(시승행사)
- (참석) 국회, 관계 부처, 지자체, 제작사 등 12명
  - (정부) 환경부장관, 산업부장관, 국토부2차관
  - (지자체) 서울시장, 광주·울산 부시장, 충남·경남 부지사, 창원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등 8명
  - (제작사) 현대자동차 전략기획·홍보담당 사장

### □ 세부계획(안)

구 분	시 간	내 용	장 소
협약식	16:00 ~ 16:03(3')	· 개회 및 내빈소개	플라자호텔 루비홀 (22층)
	16:03 ~ 16:12(9')	· 인사말씀(산업·환경·국토부, 서울시)	
	16:12 ~ 16:22(10')	· '19년 수소버스(30대) 시범사업 협약 ※ 환경부(주관), 산업부, 국토부, 지자체(8), 현대차	
	16:22 ~ 16:27(5')	· '18년 수소버스(1대) 시범운영 협약 ※ 산업부(주관), 환경부, 서울시	
	16:27 ~ 16:30(3')	· 수소충전소 민간SPC 발대식 ※ 산업·환경·국토부, 민간SPC社(13社)	
(이동)	16:30 ~ 16:40(10')	· 플라자호텔→서울광장	서울광장
시승식	16:40 ~ 16:50(10')	· 수소버스 브리핑 및 수소차 미세먼지 정화 시연(현대차)	
	16:50 ~ 17:00(10')	· 수소버스 시승(장관, 시장 등 단체장) ※ 서울광장~종로1가~을지로입구~서울광장	

**1. 수소버스 보급 확산 업무협약의 취지는?**

- 정부-지자체-제작사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2.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협약서에는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의 확산을 위한 협력 사항 및 홍보 강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3.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목적은?**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대도시 대기오염 비중은 65% 이상이며, 이 중에서 36%가 대형경유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배출가스로 인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친환경 버스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 따라서, 수소버스 본격 보급('20~)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찾아내 미리 해소하기 위해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4. 시범사업의 추진기간과 추진방식은?**

- 시범사업 추진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이며,
- 추진방식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각각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2억원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보조금 약 1억원을 지원하고, 현대자동차는 차량비용 분담(2억원+ $\alpha$ ), 차량 AS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 ‘일생활균형(워라밸)’ 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14일 서울 강남 SETEC에서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이번 컨퍼런스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일·생활 균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경제단체와 우수기업 임직원,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명사 특강, 공모전 시상,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요

- 일시: '18.11.14.(수) 09:00~12:00
- 장소: SETEC 컨벤션 국제회의장(서울 강남구)
- 대상: 기업 CEO, 임직원 등 일·생활 균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 주요내용: (1부) 명사 특강(미키김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전무,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2부) 우수기업 사례 공유, 공모전 시상식 등  
(부대행사) 당선작 전시회

- 1부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흥미로운 강연이 진행되었다.
  -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전무 미키김은 실리콘밸리 경쟁력의 원천인,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근로문화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전달하였다.
  - 이어서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적응, 그리고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빅데이터로 보는 워라벨 경향에 대해 특강을 했다.

- 2부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한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사례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기업(10개)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 (주)티몬이 영예의 대상을,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와 프렉스에어코리아(주)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선정 결과

- 대상: (주)티몬
- 최우수상: 롯데쇼핑(주) E커머스사업본부, 프렉스에어코리아(주)
- 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 피에스앤마케팅(주), (주)엘앤에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장려상(노사발전재단상): 금호고속(주), 주식회사 청밀, 좋은아침병원,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 소셜커머스 기업인 (주)티몬은 개발·기획 직군에 재택근무제를 도입(주1일, 월2회)하여 대상 인원의 약 35%가 활용하고 있으며,
  - 연차휴가와 별도로 2시간 초단기 휴가제 '슈퍼패스'를 제공하고 (반기 4회, 이용률 100%),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활용월수에 따라 1일씩 보상휴가를 주고 있다.
-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는 직원의 100%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연차활용실적에 따른 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 회의·보고문화 개선 운동, 업무 간소화 등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 프렉스에어코리아(주)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남성 직원에게 1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하고, 초등학교 입학 자녀가 있는 경우 6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주고 있으며,
  - 1년 만근 시 1일씩 무제한으로 추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들의 '18년 평균 연차일수가 31일에 이른다.

□ 이어서 '위라벨로 달라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사진 공모전 수상자(최우수,우수)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 총 1,186건 참여(일러스트 636건, 사진 550건),

일러스트 부문(최우수1, 우수2, 입선7), 사진 부문(최우수1, 우수2, 입선12)

○ 창의적이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끌어낸 작품이 당선되었으며, 일러스트 당선작을 **엽서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전시회도 마련**하였다.

○ 지난 9월 고용노동부와 잡플래닛이 공동 선정한 **'2018 위라벨 실천 기업'(10개)**에 대한 인증패 전달식도 열렸다.

\* (주)동화엔텍, 디와이(주), (주)동우화인켄, (주)에이스프로젝트, (주)크몽, 이디엠 에듀케이션(주), 현대드림투어(주), (주)멀티캠퍼스, (주)트리플하이엠, 메조미디어(주)

□ **이재갑 장관**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며

○ “정부도 일하는 모든 분들의 **일·생활 균형**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인식개선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1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요

### □ 행사 개요

- 일 시: 2018.11.14(수), 9:00~11:50
- 장 소: SETEC 국제회의장 (서울 강남)
- 주 최: 고용노동부
- 참 석: 기업 인사담당자, 근로자 등 약 300명
- 주요내용: (1부) 명사 특강/ (2부) 우수사례 기업·공모전 시상식

### □ 행사 일정

구분	시간	세부 내용	비고
식전 행사	8:30-9:00 (30')	참가자 등록	부대 행사 :로비 일원 (공모전 작품 전시 등)
	8:55-9:00 (05')	행사장 입장 및 착석	
1부 명사 특강 (105')	9:00-9:03 (03')	개회	
	9:03-9:53 (50')	<특강 1> 실리콘밸리의 일하는 문화	
	9:53-9:55 (02')	행사장 정돈	
	9:55-10:45 (50')	<특강 2> 적응, 그리고 협력	
Break	10:45-11:05 (20')	참가자 등록	
2부 시상식 (45')	11:05-11:07 (02')	국민의례	
	11:07-11:10 (03')	내빈 소개	
	11:10-11:15 (05')	개회사	
	11:15-11:21 (06')	축하공연	
	11:21-11:27 (06')	우수기업 영상 상영	
	11:27-11:40 (13')	공모전 및 우수기업 시상	
	11:40-11:50 (10')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11:50-	폐회	

## 제 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모시는 글**

우리 시대의 행복 조건 0순위로 떠오른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생활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 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일과 생활 모두의 행복을 위한 뜻 깊은 행사에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안내**

**일시** 2018. 11. 14. [수] 09:00 - 12:00

**장소** SETEC 컨벤션 국제회의장

**내용** **1부 : 행사개막(09:00 ~ 11:00)**

 <p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1</p> <p>&lt;실리콘밸리의 일하는 문화&gt; 강사 : <b>박기길</b> (구글 코리아 대표이사 회장)</p>	 <p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2</p> <p>&lt;적용, 그리고 협력&gt; 강사 : <b>송길명</b> (삼성전자 사외이사)</p>
---	--

**2부 : 시상식 (11:00-12:00)**  
개회사, 축하공연, 워라벨 우수기업 소개, 시상식, 퍼포먼스 등

**모시는 길**

**SETEC (세텍)**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대치동 514 SETEC]

③ 학여울역 1번출구

## 자살·스쿨 미투 등 청소년 위기문제에 지역사회 중심 대응 강화

-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19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자살예방 및 스쿨 미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자살·자해 및 스쿨 미투 등 최근 청소년 위기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 ※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회의기구로,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13개 관계 부처(기관)와 민간위원 6명이 참여
-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고안건으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을 제시했다.
  - 지역사회 내 각종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생명사랑지킴이)**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살 위험이 감지되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긴급 지원팀**’이 구성돼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 CYS-Net이란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서, 교육청 등의 필수연계기관을 구축 및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지원하는 운영체계(청소년 복지지원법 제9조)

○ 또한, 청소년들이 학업부담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자녀 간 갈등해소를 위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 '13~16년 '청소년의 죽고 싶은 이유' ①학교성적(평균 41.9%), 가족 간 갈등(평균 24.5%), 기타(21.9%) 순

(출처 :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편, **스쿨 미투** 관련해서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민주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학교, 관련기관이 모두 협업해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시도)별로 '**청소년 음부즈만**'을 배치해 **청소년들 스스로 인권 수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현재 준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스쿨미투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연계지원 활성화 방안**', '**청소년 미혼모 위탁교육 지원방안**', '**청소년 범죄·비행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민간단체의 협업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환경의 급변으로 오늘날 청소년들을 둘러싼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된 대응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특히 최근 청소년 관련해 가장 뜨거운 문제인 ‘스쿨 미투’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가해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교내 성평등 교육의 강화 등 근본적 해법마련을 위해 협의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6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요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 분야별 주요시책·제도개선·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 (설치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0조)

□ 일시·장소 : '18. 11. 19.(월), 16:00 ~ , 17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여성가족부(장관, 위원장)

○ 정부위원(13)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자부·복지부·고용부·중기부 차관, 방통위 부위원장, 경찰청장

○ 민간위원(6) : 김민, 송병국, 유성렬, 이은경, 이현숙, 황윤옥 (가나다順)

□ 회의 안건 : 총 6건

구분	안 건 명	소관기관
논의 안건	1. 청소년 스쿨 미투 대응 방안	여성가족부·교육부
	2.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경찰청
보고 안건	1.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	여성가족부
협조 사항	1. 학교 밖 청소년 연계지원	여성가족부
	2. 청소년 미혼모 위탁교육	여성가족부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민간단체 협업 강화	경찰청

## I. 추진 개요

### □ 추진배경

-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자해인증, 자살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 확산 및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

\* 자살충동을 느끼는 아이는 심리적 자존감 저하와 우울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부모·교사 등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또래 집단의 정서적인 지지가 줄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살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짐  
<출처 :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어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 국민일보('18.11.17)>

\*\*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자해 사진·영상 등을 게시  
<출처 : “청소년 자해 동영상 유행 어쩌나”, 동아일보('18.10.25)>

- 미취업 후기 청소년의 은둔형 외톨이 및 우울증, 정신장애 등의 호소 문제로 자살 위험군 증가 추세

- 18~29세 12% 정신장애 경험, 20대 2주간 일상 스트레스 경험 58.2%

\* 출처 : “고용 절벽 시대...미취업 청년 정신건강 위협”, 서울신문('18.3.15)

- 자살·자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 예방대책 수립·추진 필요

###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복지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18.1월)」 수립 및 시행 중

- 5개 추진과제\*, 국조실 등 10여 개 부·처·청 참여

\*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 제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확산 예방,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 특히 대상별 자살예방 과제는 연령별, 직업별, 초·중·고등학생(교육부), 학교밖청소년(여가부) 등 분류하여 주무부처별 시행

## II. 현황 및 원인분석

### □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

- 청소년 10만명당 자살률은 '11년 9.4명에서 '15년 7.6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16년 7.8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소년 (10~24세)	9.4명	8.4명	8.2명	7.8명	7.6명	7.8명

\* 출처 : '11~'16년 청소년(10~24세) 자살률 추이(보건복지부)

- 10년째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10만명당 7.8명)로 지속됨
  - 청소년 사망원인 2위인 교통사고 사망률(3.8명)의 2.1배

\* 출처 : 2018년 청소년 통계(통계청-여성가족부)

- 청소년 자살·자해시도자 수 역시 매년 2천명 이상 유지\*

[단위 : 명,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살·자해 시도자 수	2,400명	2,480명	2,450명	2,319명	2,243명
전연령 대비 비율	10.9%	9.9%	9.6%	8.7%	8.3%

\* 출처 : '16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중앙응급의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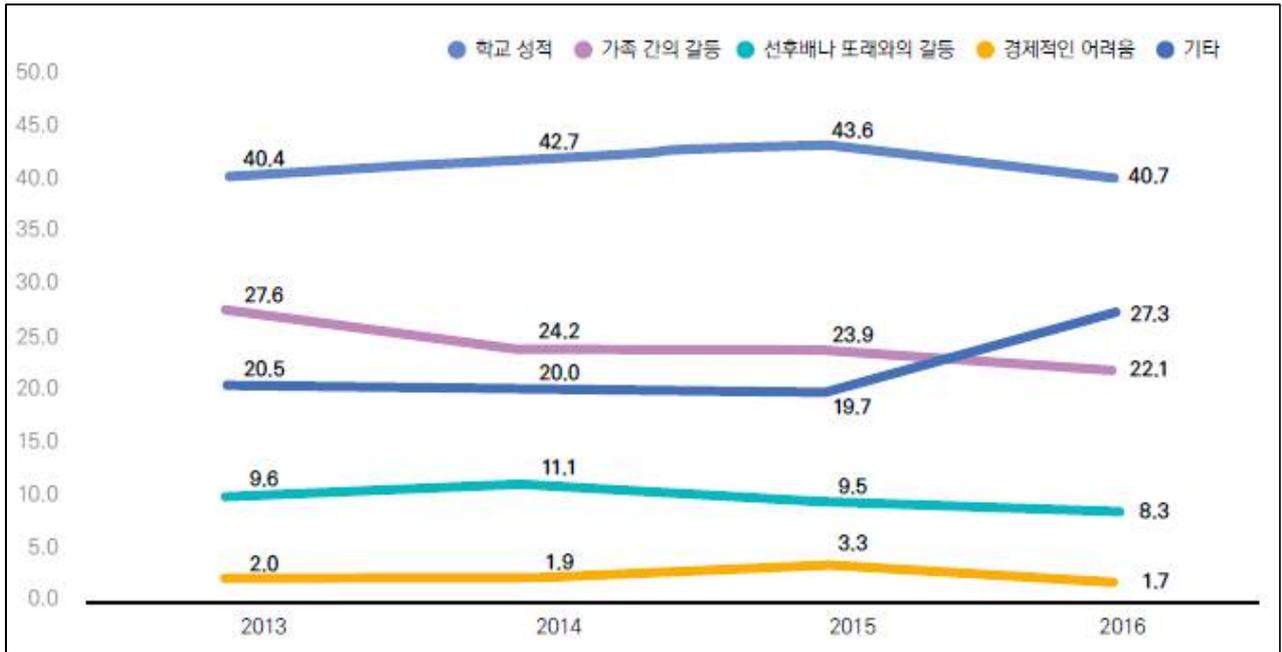
-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경험 여부는 여자 청소년이 14.9%로 남자 청소년 9.5%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남

- 1년간 자살 계획 경험 : 여자 청소년 4.3% > 남자 청소년 3.8%

\* 출처 :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

□ 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

- '13~'16년 '청소년의 죽고 싶은 이유'는 학교성적(평균 41.9%), 가족간 갈등(평균 24.5%), 기타(21.9%) 순으로 나타났음



\* 출처 :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중학생은 학교성적(평균 36.2%), 가족간갈등(평균 30.4%) 순으로 고등학생은 학교성적(평균 47.0%), 기타(24.8%), 가족간갈등(19.1%)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스트레스 심각

[단위 : %]

구분	1	2	3	4	5
중학생 '죽고 싶은 이유'	학교 성적	가족간 갈등	기타	선후배나 또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고등학생 '죽고 싶은 이유'	학교 성적	기타	가족간 갈등	선후배나 또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청소년(합계) '죽고 싶은 이유'	학교 성적	가족간 갈등	기타	선후배나 또래 갈등	경제적 어려움

⇒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청소년 활동 강화 필요

⇒ 가족간 갈등 해소 및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상담 활성화 필요

### Ⅲ. 추진 과제

1

#### 자살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상담·연계 지원

- ✓ 지역사회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 구축 및 상담사 배치 확대
- ✓ 청소년동반자의 자살 관련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긴급 대응
- ✓ 학교 밖 청소년 자살 징후 조기발견·지원 강화
- ✓ 청소년 자살·자해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지역사회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 구축 및 상담사 배치 확대

#####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한 자살예방 게이트 구축

\* CYS-Net이란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서, 교육청 등을 필수연계기관으로 구축·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지원(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 - 청소년상담채널(1388)과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을 활용한 자살위기 청소년 발굴 및 개입

\* 청소년상담(1388) 자살·자해 관련 전화상담건수 : ('17년) 3,358건 → ('18년 9월) 5,230건

##### - 긴급 개입이 필요한 자살 및 자해관련 청소년상담 적극 지원

\* CYS-Net(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관련 상담건수 : ('17년)2,168명→ ('18년 9월)3,053명

##### - 지역사회 CYS-Net 자살·자해 사례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청소년자살·자해 관련 CYS-Net 선대응 후 고위기로 정신과적 치료요망 시 병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 ○ 청소년기관 종사자 대상 양성교육을 확대\*하여 청소년지도자가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로 활동하며 자살 위험자 인지 및 연계

\* 청소년지도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확대 : ('18년10월) 629명 → ('19년) 800명(목표)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빠르게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

##### ○ '또래상담연합회\*' 대상 예방교육 실시 및 청소년 또래상담자용 자살·자해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배포

\* 또래상담연합회 :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또래상담자 동아리로 '17년 기준 8,244명 활동

□ 청소년동반자의 자살 관련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 자살 위기 등 고위험군 개입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배치 확대\*\*

\*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 제공하는 상담전문가

\*\* 청소년동반자 확대 : ('18년) 1,261명 → ('19년) 1,316명 ('22년까지 1,522명)

○ 학생 자살에 따른 학교 공동체 위기 발생 시 CYS-Net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긴급지원팀 구성 및 연계 지원\* 강화\*\*

\* 자살 청소년 발생 학급 및 교우에 대한 집단·개인상담 등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긴급대응매뉴얼 배포 예정('19년)

□ 학교 밖 청소년 자살징후 조기발견·지원 강화(여가부, 복지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후 초기 상담과정의 필요에 따라 자살 위기도 분석을 위한 정서행동특성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자살 위기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자살·자해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자살·자해 상담 개입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17년) 초등학교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18년) 고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개입 매뉴얼: 자살·자해편 개발 중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226개소)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개소) 종사자 대상 자살·자해 상담 프로그램 지도자양성교육 실시

\* 자살·자해 상담 프로그램 지도자 교육 : ('18년 10월) 629명

## 2

## 청소년 활동 강화

- ✓ 청소년 주도적 활동 활성화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진로역량 강화
- ✓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통한 학업 스트레스 해소

□ 청소년 주도적 활동 활성화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진로역량 강화  
(여가부, 교육부)

- ‘스트레스 내성’ 관련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확산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향상

※ 스트레스 내성(stress frustration) : 스트레스 상황에 얼마나 견디느냐를 말해주는 개념으로 위기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

- ‘스트레스 내성’을 기를 수 있는 ‘사회정서 역량\*’ 기반의 청소년활동 개발 및 참여 확산

\* 사회정서 역량 :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인식, 대인관계,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구성)

- 청소년의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 개발 확대

-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관련 의식 제고를 청소년 프로젝트 중심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 지원

- 자존감·정서 회복, 건강한 또래관계 및 사회성 형성을 위한 사회참여, 인문사회, 스포츠 등 다양한 동아리 지원

\* ('15) 1,460개 → ('16) 2,100개 → ('17년) 2,500개 → ('18년) 2,500개

-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 및 기획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활동 확대 추진

\* ('17년) 4개 시·도, 27건 → ('18년) 전국 17개 시·도, 99건 프로그램

-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수련시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지원
  -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 개별 적성과 소질을 감안한 진로탐색,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통한 학업 스트레스 해소(여가부, 문체부)

-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스포츠·놀이체험의 장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 \* 시·도(16개소, 연 11회 이상 개최) / 시·군·구 (110개소, 연 6회 이상 개최)
-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강사가 청소년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연계, 청소년연령 및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놀이·여가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 \*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활동정보 제공건수 : ('18.10월 현재) 309천건

**3**

**가족상담·위기가족 지원 강화**

- ✓ 가족관계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부모교육 활성화
- ✓ 부모-자녀 상담 강화 및 가족캠프 지원
- ✓ 자살 등 충격적 경험 가족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 가족관계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부모교육 활성화(여가부, 교육부)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사용 매뉴얼 보급
  - \* 부모교육 강사 활용 건가센터 내 부모교육, 아빠교육 등 가족교육 추진
- 생애주기별·가족특성별 온라인 부모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 부모교육 강사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 시 활용토록 교육지원

□ 부모-자녀 상담 강화 및 가족캠프 지원

○ 부모-자녀 갈등으로 발생하는 가족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상담 전문인력 배치

- \*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2개소 운영('18년)
- \* '19년 22개소(44명) 상담인력 배치(예정)
- \* 일반상담, 정보제공 상담, 집단 상담 등 지원

○ 가족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가족캠프 등 가족 공동 청소년활동 확대

- 청소년과 가족에게 청소년활동을 바탕으로 의사소통과 가족애를 강화할 수 있는 주제중심 체험형 가족캠프 운영(국립수련원 활용)
- 가족 중심 목표 설정 및 달성하는 ‘가족형 포상제’ 모델 확산

※ 가족형 포상제 : 청소년 포함 2인 이상으로 보호자 중 1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참여대상 : 보호자가 동참할 수 있는 만 9~13세 청소년
- 활동내용 : 봉사·자기개발·신체단련 중 한 개 영역과 가족탐험활동

□ 자살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위기가족의 회복지원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 취약·위기가족 대상 부모역량 강화교육 또는 사례관리 실시

- \* 수행기관 : '18년 61개소 → '19년 70개소

<긴급위기가족 단계별 지원 과정>



## 4

## 자살 및 자해 조장 유해 환경 대응

- ✓ 자살·자해 관련 콘텐츠의 유해매체물심의 및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 ✓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 웹툰·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자율규제 추진

### □ 자살·자해 콘텐츠의 유해매체물 심의 및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여가부)

- 자살송 등 자살·자해를 조장하는 대중가요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신속 지정

\* ‘대가리박고 자살하자’ 등 자살 조장 음반 및 음악파일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07~) : 97개곡

- 자살·자해 조장 가요 등을 활용 제작된 영상물 등의 인터넷(유튜브 등) 차단을 위한 업계 자율규제 강화

\* 자살·자해 관련 음악파일 235건, 영상물 153건 자율규제(구글 유튜브) 요청('18.10월 기준)

- 1인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청소년유해영상물 유통확산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전담인력 등 기반 확충(여가부)

\* 청소년유해영상물 모니터링팀 신설 : (현재) 14명 → (목표) 18명(4명 증원)

### □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 웹툰·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자율규제 추진

- 사회에 대한 부정적 과급 예방 및 자살촉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언론·방송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비공개원칙 준수 모니터링(방통위)

\* 정확한 사인 규명 전 자살단정 언급 자제, 자살수단·장소 비공개 등

- 자살을 부추기는 웹툰·드라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문체부, 복지부)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건설기술은?...스마트건설기술·안전대전 개최

- 27일 건설회관서 전문가 토론회·창업 아이디어공모전·안전경진대회 시상도 -

- 산학연의 각계 건설인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건설기술·안전 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기술도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과 함께 27일 건설회관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대전'을 개최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건설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스마트 대전은 지난 10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의 연장선이다.

< 오전행사 : 기초연설 및 공모전.경진대회 시상식(대상작 발표) >

- 기초연설에 나선 한양대학교 이종세 교수는 '전환기의 한국건설, 새 지평을 바라보다'를 주제로 변화의 시대에 우리 건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 스마트 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설비비와 건축비를 줄이는 사물인터넷(IoT) 소방방재 시스템'을 제시한 파이어버스터의 황혁주 대표와 김승연 이사, "'스마트 스타프를 이용한 실시간 지하매설관 3차원 건축정보모델(BIM) 구축시스템'을 제시한

(주)무브먼츠의 윤대훈 대표가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 장관상 수상자를 포함해 공모전에서 입상한 12팀은 '19년부터 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에 입주해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건설.시설 안전 경진대회에서는 총 5팀이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 유지관리 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서연성씨가 '사물인터넷(IoT) 센서기술을 활용한 첨단 작업장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수상했고,
- 진단 및 보수보강부문에서는 '구조물 비파괴 시험용 이동식 대차 계측 시스템'을 제안한 대학생 송준혁 씨가 수상했다.
- 건설안전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시한 한국전력공사 등 3개사가 수상했고.
- 건설안전 표어 부문에서는 대학생 서효영 씨가 '기울어진 동바리는 생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라는 표어로 수상했다.

\*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양생되어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과 콘크리트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직 가설 부재

- 건설안전 포스터 부문에서는 '이번 현장도 복붙입니까?'라는 주제로 현장의 형식적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문제를 짚은 아산시청의 김민정 씨가 수상했다.

<오후행사 : 주제별 포럼(스마트 건설기술.건설기준.안전유지관리 등)>

○ 오후에 이어진 포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스마트 건설

기술과 첨단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했다.

\* 스마트 건설기술: 전통적 토목·건축기술에 건축정보모델(BIM)·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기술

□ 행사 현장에는 다양한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선보이는 홍보 공간도 마련되어 의미를 더했다.

○ 건축정보모델(BIM) 소프트웨어, 가상시공, 사물인터넷(IoT) 기반 공사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레이저 스캐너, 가상현실(VR), 드론, 무선센서 등 새로운 기술들이 행사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고, 스마트 새싹기업은 자사의 기술을 선보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대전은 건설산업 전반에 기술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라며,

○ “앞으로 이 행사가 우리 건설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행사개요

- (행사명)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대전”
- (時/所) '18.11.27(화) / 건설회관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참석자) 기업,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경진대회공모전 참가자 등
- (행사내용) 스마트 건설기술, 건설·시설안전 관련 대회 시상\* 및 우수작 발표, 분야별 전문가 포럼, 부대 전시행사

\* 2018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2018 건설·시설 안전 경진대회

□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오전 행사	09:00~09:30	등록 및 기념품 배포		
	09:30~10:00	개회식 [개회사(국토부 1차관, 환영사(공단 이사장, 건설연 회장), 축사(임종성 의원, 송석준 의원)]		
	10:00~10:20	시상식 (아이디어 공모전, 안전 경진대회)		
	10:20~10:50	기조연설 (전환기의 한국건설, 새 지평을 바라보다)		
	10:50~11:50	대상작 발표 (아이디어 공모전, 안전 경진대회)		
	11:50~13:00	중 식		
오후 행사 (포럼)	13:00~14:20	<안전·유지관리 I> 성능유지관리기술	<건설기준> 시설안전 길잡이 건설기준	<스마트건설기술 I> 미래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전, 스마트건설
	14:20~14:40	Break Time		
	14:40~16:00	<안전·유지관리II> 건설안전 /재난대응기술	<안전·유지관리III> 4차산업혁명기술	<스마트건설기술II> 미래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전, 스마트건설

## 해수부,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 23일 여의도에서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월 23일(금)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국항만협회, 항만공사, 건설사, 해운물류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2018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는 해외항만건설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우리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출범한 민관협의체로, 연 2차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외인프라 발주 방식이 단순 도급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도급형 : 발주자(발주처)가 금융 등 전반을 담당하고 건설·플랜트 회사는 단순시공 또는 설계·조달·시공(EPC) 등을 담당하는 사업

\*\* 투자개발형 : 참여기업이 사업개발, 지분투자, 금융조달, 제품구매, 항만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형태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개발, 금융, 회계, 법률 등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전략과 베트남·인니 등 중점 국가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 앞서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항만공사, 선사, 건

설사 등 주요 해외항만개발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해외항만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 선사의 해외 공동진출방안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유망사업 발굴·투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해외항만개발을 통해 국내 항만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로 민간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